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모성경험

권영은¹ · 박정숙²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²

Vietnamese Immigrant Women's Experience of Maternity after Childbirth

Kwon, Young Eun¹ · Park, Jung Suk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ohang University, Pohang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of Vietnamese migrant women's maternal experience after childbirth. **Methods:**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this study. Study participants were six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d experience of childbirth in Korea.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February 1 through November 4, 2016.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analyzed with the Giorgi method. **Results:** As a result of study, six main meanings and 12 themes were produced. The six main meanings produced in this study were 'childbirth realized in the double difficulty', 'concerned health between the 0̇ c̄r and the sanhujori', 'tired body with hard parenting', 'crowding regret for international marriage after childbirth', 'Grateful partner becoming the prop', and 'Growing maternal instinct by moving the mind and body in a foreign country'. **Conclusion:** Consideration for postnatal care is necessary from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s viewpoint.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nursing capability of medical personnel for multicultural clinical practice with development of a postnatal care program suited to multicultural are also necessary.

Key Words: Emigrants and immigrants, Postnatal care,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국제적 지위 향상과 세계화로 많은 변화 속에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인적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1]. 최근 국내 국제결혼은 한인 간 결혼의 감소와는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출신국으로는 베트남이 27.9%로

1위, 출산율에서도 베트남이 3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는 장래 우리나라 인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많아지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과 출생아 집단의 건강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출산은 여성에게 있어 단순한 생물학적 생식현상만이 아닌, 출산 사건이 일어나는 맥락 안에서의 가치, 신념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와 통합된 현상이다[3]. 출산 중에서도 산후조리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통적 영역으로[4], 한국에서는 '산후조리를

주요어: 이민, 산후관리, 모성,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Park, Jung Suk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Gamcheon-ro, Seo-gu, Busan 49267, Korea.

Tel: +82-51-990-3978, Fax: +82-51-990-3970, E-mail: cooler1978@kosin.ac.kr

- 이 논문은 제 1저자 권영은의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s thesis from Kosin University.

Received: Aug 27, 2018 / Revised: Nov 20, 2018 / Accepted: Dec 3,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연구방법

잘해야 평생이 건강하다'라는 오랜 신념이 현재 여성들에게도 전해져[3] 그 중요성이 강하게 전달되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산후조리는 한국의 민간대중에 의한 전통적인 산후관리로, 여성의 체험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 더 나아가 여성의 전 생애 주기 동안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돌봄이라 할 수 있다[5]. 베트남에도 한국의 산후조리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어끄(õ cừ)'가 있고[6], 출산 후 무리를 하면 고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전통적 신념이 존재하여[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출산 관리에서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출산을 통한 모성 전환은 문화적 적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므로 일반 여성의 모성전환과는 달라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8].

한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한국인 산모보다 더 많고[9], 산후우울은 어머니 역할 적응과 가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10,11]. 따라서 한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타국생활이라는 초기 적응 가운데 출산으로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 부담을 줄여 건강한 산모로서의 한국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관련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임신, 출산 자체의 경험[12], 모성갈등[13],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건강관리의 경험[14]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임신 출산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 관리에 주로 초점을 둔 연구로, 출산 이후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한 모성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출산 후 모성경험을 단순한 '생식기 복구'라는 신체적 회복의 관점이 아닌 여성건강 전체를 조망하고 건강한 삶을 구성해가는 간호의 전인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모성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발견하고 기술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간호 요구를 파악하고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모성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여성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모성경험은 무엇인가?" 이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여 그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P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6명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3. 자료수집과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4일까지이었으며 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신의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찾고자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 담당자를 통해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5명의 연구참여자를 순차적으로 소개 받았다. 연구참여자가 모두 외국인이므로 언어적 한계를 감안하여 모국어 출신 통역자와 함께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2명은 취업을 하게 되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연구 철회를 요청하였고, 이후 본 연구의 추가 참여자는 연구대상자들의 지인을 소개받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집이나 카페에서 만나길 원하였고, 일부 참여자는 상황에 따라 집이나 음식점에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라포를 형성하였고, 이후 참여자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연구 주제를 위한 심층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면담은 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통역사는 참여자의 1차 면담과정에 동참하였고, 각 참여자의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 2회까지 동참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별 면담 횟수는 최소 2회에서부터 최고 5회까지 진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소요되었다. 또한 참여자에 따라 3회 이상의 면담에서는 상황에 따라 전화면담을 진행하였고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한국에서 출산 후 모성으로서 느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다.

까?”로 시작하였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의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의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여섯 번째 참여자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아 이를 포화시점으로 보고 자료수집을 마무리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면담 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Giorgi의[15]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진술로 표현된 필사 내용을 읽으며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연구자의 생각은 괄호 속에 넣어두고 참여자들이 표현한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수차례 읽어갔다. 각 참여자의 자료를 구분하여 그들의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윤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필사 자료에서 연구주제인 참여자들의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의미단위를 구별하며 읽었다. 또한 의미단위는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경험의 내용과 의미의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구분된 의미단위를 유사성과 차이성을 구분하여 유사 의미단위로 묶어 참여자들의 산후조리를 통한 모성의 경험단위를 학문적 관점으로 용어를 바꾸어 나갔다. 마지막으로 의미단위를 6개의 중심의미와 12개의 주제로 도출하여 참여자 전체의 관점을 통해 경험을 일반적 구조로 합성하고 통합하였다.

5.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심의, 승인을 받고(승인 번호: KU IRB 2015-0092-01)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면담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함을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해 모국어 감수를 거친 연구참여 동의서를 통역사가 함께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자와 참여자가 동의서를 한 장씩 나누어 가졌다.

6.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 및 교신저자는 학위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간호 과학철학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학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질적 연구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질적 학회 워크숍 및 학회활동을 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조산사로 임상 및 해외 현장에서 일하며 여성 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두 번의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관리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임상에서 다문화 여성들을 간호하며 그들의 산후관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이러한 관심이 선입견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자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7.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 [16]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이 끝나면 참여자들의 경험을 즉시 필사하여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필사본을 여러 번 읽어가며 참여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따로 메모하였다가 이후 면담에서 참여자 자신의 정확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여 본 연구결과의 신빙성(credi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가 참여자가 아닌 다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황에도 유사한 맥락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여 적용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의 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다른 연구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고, 질적 연구 전문가의 감사를 통해 신뢰성(dependa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면담일지에 미리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적어가며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질적 연구가 풍부한 질적 연구자로부터 자문과 검토를 받아 확증성(confirm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정보제공자 6명의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출산 후 기간은 1개월 이후부터 3년 정도로 평균 2년 정도였고, 한국 거주는 4년에서 10년으로 평균 6년 정도 되었다. 이들의 출산 시 나이는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었고, 1명이

10대 후반이었다. 또한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0살 이하가 1명, 나머지는 13세 이상 차이가 있었다. 결혼과 출산까지의 시간은 최소 7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평균 1년 6개월로 임신은 평균 1년 안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의 출산력은 1회가 2명, 2회가 4명이었다. 분만 유형으로는 자연 분만이 4명 제왕절개가 2명이었다. 출산 시 시대와 동거한 경우 4명, 분가한 경우는 2명이었다. 한편, 초산과 경산을 통합하여 분산후 조력자로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산후도우미가 있었고, 이 중 1명은 산후 조리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의 구성요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의 본질은 6개의 중심의미와 12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6개의 중심의미는 ‘이중고 속에 이루어진 출산’, ‘어끄(ở cũ)와 산후조리 사이에서 염려되는 건강’, ‘버거운 육아로 지쳐가는 몸’, ‘혼자 감내해야 하는 돌봄 속에 사무치는 향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품 운동반자’, ‘심신을 추스르며 정착해가는 모성’이었다. 참여자의 한국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을 중심의미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1) 이중고 속에 이루어진 출산

본 연구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타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낯선 환경과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타국 삶에 초기 적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때 이른 임신은 아직 의사소통도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

을 힘들게 만들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출산이라는 과정이 타국이라는 초기 생활적응과 맞물려 이루어짐에 난감하기만 하였다. 임신보다 아기를 돌봐야 하는 출산 이후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식 부족과 모국어로 된 정보의 부족이 더욱 느껴져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아파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언어적 한계와 가족 안에 있지만 소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준비되지 못한 출산’ ‘언어소통의 부재가운데 고립’이었다.

(1) 준비되지 못한 출산

참여자들은 타국에서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여성 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계획하지 못한 임신으로 인하여 초기 정착과정의 어려움은 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다문화센터나 병원에서 기본적 정보를 배우긴 하였어도 출산이라는 실제적 상황에서 정착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그냥 생겨서 낳았어요. 한국에 와서는 피임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피임약은 생리할 때 먹어야 하는데 저는 원래 생리가 불규칙하니까(한국 와서)피임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고... 첫째가 태어났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난감 했죠.(참여자 2)

둘째 낳고, 3개월 만에 또 임신을 했어요. 생리도 없었고... 첫째도 힘들었는데, 둘째까지 너무 빨리 임신이 되니까... 제가(피임)몰라서(부끄러워하며)... 다문화센터에서 배워도 자세히는 모르니까...(참여자 4)

Table 1. Main Meanings and Themes

Main meanings	Themes
Childbirth realized in the double difficulty	· Unprepared childbirth · Isolation in the absence of language communication
Concerned health between the ở cũ and the sanhujori	· My body concerned by Korean postpartum care · Regret for not managing postpartum in Vietnam
Tired body with hard parenting	· Burden of child care alone · Conflicts due to differences in parenting methods
Crowding regret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after the childbirth	· Parents who are more nostalgic by giving birth to another country · Loneliness of a foreign life after childbirth
Grateful partner becoming the prop	· Family of great comfort · Support through family-like acquaintances
Growing maternal instinct by moving the mind and body in the foreign country	· Child who has been a link in life in another country · Take your body and become a mother

(2) 언어소통의 부재 가운데 고립

참여자들은 타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부딪히며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출산을 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과 가족이 있어도 소통할 수 없어 혼자라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말도 안통하고... 집에 있으면 시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했죠... 저도 열심히 이해하려고 들어보지만 머리만 아파요. 그러다보면 대화도 끊어지고...(참여자 4)

한국에서 애기 낳고 한국말 몰랐잖아요. 내 몸이나 아기 걱정은 되는데, 아기 목욕하는 거, 분유 타는 거 물어보려고 해도... 아기는 빨리 생기고 그 시간만큼 한국말을 빨리 못 배웠잖아요... (중략) ...베트남 말로 된 자료라도 많았으면 좋았겠죠. 우리는 외국인이니까...(참여자 3)

2) ‘어끄(ở cũ)’와 ‘산후조리’ 사이에서 염려되는 건강

참여자들은 출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의 산후조리 과정에서 모국과 같이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동일한 산후관리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몸조리를 통해 느낀 한국 산후조리는 모국의 산후관리인 ‘어끄(ở cũ)’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출산 후 멀리 있는 친정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 음식이 생각나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모국과 다른 환경, 사람, 음식이라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끄(ở cũ)를 지키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참여자는 한국의 다양한 산후조리 방법과 음식 사이에서 모국과 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한국식 산후조리에 걱정하게 되는 내 몸’, ‘지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베트남의 어끄(ở cũ)’이었다.

(1) 한국식 산후조리에 걱정되는 내 몸

참여자들은 출산 후 자신의 몸을 위해 지키는 산후관리방법이 모국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었다. 막상 한국식 산후조리를 겪어보니 방법적인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아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국에서 신체 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에 솜을 막거나 몸을 씻는 것을 조심하면서 찬 기운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은 신체 활동을 줄여 누워서 쉬는 휴양에 중점을 둬서 출산으로 약해진 몸을 보호하는 것

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자 목욕하지 않는 것을 한국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출산 후 제공되는 음식 중 모국에서 금기시되는 종류가 있어도 눈치를 보며 먹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식 산후조리를 참여자들은 편치 않은 마음으로 따라야만 했다.

조리원에서 한 가지 단점은 조리하면 쉬고 해야 하는데, 언제든지 전화 와서 애기 젖을 주라고 하니깐, 가면(수유하면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애기를 직접 데리고 와서 방에서 누워서 먹이면 편한데, 그게 안 되고 소파에 앉아서 먹이고 와야 되니까... 저는 허리가 아팠어요. (참여자 5)

산후조리원에서 딱딱하게 보이는 음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인데... 안 먹으면 너무 외국인이라는 티가 나는 것 같아 조금씩 먹었어요. 조금씩 먹으면서도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죠.(참여자 5)

우리나라는(베트남) 애기 낳고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안 씻어야 (몸에) 좋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집 안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목욕탕을 가라고 했어요...(참여자 6)

(2) 지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베트남의 ‘어끄(ở cũ)’

참여자들은 양국의 산후관리 방식이 달랐지만, 한국의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한국에서의 산후조리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국에서 더 오랜 기간을 지내왔기에 고향 음식이 그리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전통적 산후관리인 ‘어끄(ở cũ)’가 생각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모국의 방식으로 귀에 솜을 넣어 보려고 하였으나 한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 못하였고, 시댁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싫어 포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먹고 싶은 고향 음식은 포기되지 않아 주변의 시선을 염려하여 지인의 집에서 먹거나 모국 요리방식과 비슷한 한국 음식을 찾아 먹으며 아쉬움을 달라고 있었다.

애기 태어나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베트남은 귀에 솜을 막는데 엄마도 막아야 하고, 애기도 같이 막아야 해요. 바람이나 비 안 들어가고 따뜻하게... 여기서는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니까 못했죠.(참여자 3)

저는 고향 음식 많이 안 먹었어요.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이 있고 하니까 먹을 수는 있는 데 불편했어요.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일 싫은 게 (시어머니) 잔소리라서... 그 게 싫어서 베트남 음식 먹을 수 있지만, 해 먹으면 또 한마디 하잖아요. 할머니 (시어머니) 잔소리... 그 때는 먹고 싶으면 아는 (고향) 언니 집에 가서 먹었어요... (중략) ...베트남은 아기 낳고 짜게 요리해서 먹어요. 입맛이 없고 하나 까... 한국 음식 중에 깻잎, 마늘장아찌 같은 음식을 골라 먹었어요.(참여자 2)

3) 버거운 육아로 지쳐가는 몸

참여자들은 출산 후, 한 달이라는 기간을 기점으로 아기의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아직 신체적 회복이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어떠한 아기 돌보기의 이행기 없이 혼자 육아를 감내해가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육아를 자신의 신체적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는 참여자들을 매우 지치게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육아 방식의 차이로 남편이나 시댁 식구와 잦은 충돌이 생기며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홀로 하는 육아의 버거움’, ‘육아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다.

(1) 홀로 하는 육아의 버거움

참여자들은 출산을 통하여 임신기간 동안 자신과 한 몸이었던 아기와의 만남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넘는 어려움이었다. 참여자들은 길어야 한 달이라는 한국 산후조리기간 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아기를 돌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시점에서 육아는 오롯이 자신 혼자만의 몫이었다. 특히 아기의 응급상황에 대한 부담감은 혼자라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시어머니가 한 달 도와주시고 시골로 가셨고, 그 후로는 저하고 남편하고... 낮에는 혼자(아기를) 보니까 무서웠어요. 애기 목욕시킬 줄도 모르구요(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웃음)... 애기 목욕시키려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언제 올지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같이 시켰어요... (중략) ...애기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는데 토하고... 구토가 너무 심했어요. 아기한테 영양이 안 가게 되니까 걱정되고... 애기는 작는데 나는 경험도 없으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참여자 3)

기저귀는 베트남은 가족이 많으니까 다 도와주고 내가 못해도 주변 사람이 도와주니까 내가 맘 놓고 천 기저귀

쓰는데... 여기는 종이 기저귀 쓰니까 자꾸 발진 생기고, 물티슈로 닦아야 하니까 (아기 엉덩이) 계속 안 좋았어요. (참여자 2)

(2) 육아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

참여자들은 육아로 인한 도움이 부족한 것도 힘들었지만, 가족이 옆에 있어도 실제적인 도움보다는 말로만 거들려고 하는 상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육아 방식이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달라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랑 목욕을 시켰는데, 애기를 이렇게(손으로 옷을 포개듯이) 싸가지고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얼굴과 머리 씻기고... 배꼽은 물에 안 담그고 조심스럽게 씻겨 주셨어요. 우리 남편은 애기를 물에 담기게 하여 씻겨야 한다고 해서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첫 부부싸움을 했고, 남편이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자기가 목욕시키고 싶었던 거 같은데 의견 이 다르니까 다음에 애기 씻길 때 안 오더라고요.(참여자 1)

우리나라(베트남)는 아기를 어떻게 안든 상관없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손동작을 하며) 안으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안으면 안 되나요?(중간 중간 반문해가며 빠른 속도로 이야기 함)... 왜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던지, 그냥 이유 없이 틀렸다고만 그러니까... (중략) ...또 옆집 며느리는 모유를 길게 잘 먹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짧게 먹이려고 하느냐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참여자 6)

4) 혼자 감내해야 하는 돌봄 속에 사무치는 향수

참여자들은 타국 출산 후 충분한 산후관리를 받지 못하여 고향 가족들을 더욱 그리워하였고, 타국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다. 특히 출산 후 참여자들은 산후 우울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었다. 참여자들은 출산 후 도움을 받다가 짧은 기간이 지난 후 갑자기 혼자라는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고, 남편과 시댁 가족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국 살이에 대한 외로움은 깊어져 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제대로 받지 못한 돌봄 속에서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타국 출산으로 더욱 그리운 친정 부모’, ‘출산 후 몰려오는 타국살이의 외로움’이었다.

(1) 타국 출산으로 더욱 그리운 친정 부모

참여자들은 짧은 산후조리기간을 아쉬워하며 자신을 도와

줄 조력자가 없음을 더욱 친정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출산 후 가중된 육아로 많은 도움이 절실했지만, 타국이라는 환경 속에 모국을 그리워하며 혼자 눈물을 삼키기도 하였다.

우리 아기 태어난 후에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똑같이 키우셨겠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란 생각도 들고... 아기 낳고 통화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애기를 많이 못했어요.(참여자 3)

아기 낳고 고향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몸이 힘들니까 음식도 안 먹고 싶고... 제가 혼자서 요리해서 먹으려니 힘이 들었어요. 엄마가 있는 베트남이 아니니까...(참여자 4)

(2) 출산 후 몰려오는 타국살이의 외로움

참여자들은 타국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외국 사람이라는 경계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특히 참여자들은 출산 후라는 시기와 맞물려 모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산후 우울감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또한 시댁 가족들 속에 살아도 여전히 동일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외로움은 더욱 몰려왔다.

힘들 때 마다 친구도 많이 없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많이 울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면 크게 생각되었어요. 집을 나가버리고 싶기도 하고, 추우니까 아기를 업고 이불을 꼭 덮어서 아파트 앞을 돌아다녔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면 어두워지면 집을 못 찾을까봐 아파트 앞에만 돌아다녔어요. '한국에 왜 와가지고'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참여자 1)

시댁 어른은 남편한테 (밖에) 못나가게 지키라고 했죠. 내가 남편 얼굴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게 보이니까... 물어보면 옆집에 애기 낳고 도망간 외국 며느리가 있었다고... 시댁 어른들이 나를 안 믿더라고요... (중략) ...내가 하면 다 틀렸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게 되었어요.(참여자 6)

5)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택인 동반자

참여자들은 출산 후 모국과 한국식 산후조리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를 겪으며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가족과 가족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향의 사람

과 다문화센터 선생님 등을 통해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각 참여자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고향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며 위로를 얻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주위에 있는 동반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타국의 외로운 삶으로부터 버텨갈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큰 위로가 되는 가족', '가족 같은 주변인을 통한 지지'이었다.

(1) 큰 위로가 되는 가족

참여자들은 출산 후 타국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산후조리 기간을 보내며 혼자 자신의 몸과 육아를 돌보며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참여자들은 남편을 비롯한 시댁 가족에게 위로를 받게 됨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혼자 집안일에 아기까지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내가 갑자기 짜증내고 울고 하니까 남편이 (산후 우울) 알고 신경을 써 줬어요. 남편이 일 끝내고 와서 밖에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차타고 자주 놀러갔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좋아졌어요.(참여자 1)

고향 음식도 그립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니 쉽지 않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주말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주말에는 쉬니까 애기도 봐주고...(참여자 4)

(시)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집은 시골인데 한 달간 올라와서 도와주셔서 잘 쉬었어요. 집이 멀어서 자주는 못 오시지만, 가끔 시누이와 같이 와서 도와주시니까... 제가 좋은 가족을 만난 것이라 생각해요.(참여자 3)

(2) 가족 같은 주변인을 통한 지지

참여자들은 산후조리 기간을 보내며 가장 힘들었던 마음을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며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향의 사람들을 통해 가장 적절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문화센터 언어 선생님과 주위에서 알게 된 한국인 지인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그때 우리 집 근처에 먼저 와 있는 (고향)언니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그냥 보면 아니니까, '우리나

라 사람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구나’하고... 반가웠어요... 외국 나가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좋은 거죠. 하하하(밝게 웃음)... 제일 힘이 되었죠.(참여자2)

시댁이 멀리 있고, 다문화 센터에 다니면서 고향 사람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 정보가 필요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를 하면 되니까...(참여자3)

(다문화)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몰랐죠. 한국어를 배워서 좋았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때 우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시면 나도 따라서 가고 싶었어요...(참여자5)

6) 심신을 추스르며 정착해가는 모성

참여자들은 가족과 주변의 지지 속에 힘을 얻으며, 자신의 아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아기를 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고, 힘들었던 심신의 고충을 잊어버리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아기를 통해 타국이라는 삶의 연결점을 찾으며, 타국 삶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아기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꼈고, 자신과 아기를 위해 음식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타국 삶의 연결점이 되어 준 아기’, ‘몸을 추스르며 엄마 되어가기’이었다.

(1) 타국 삶의 연결점이 되어 준 아기

참여자들은 한국식 산후조리를 겪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원동력을 아기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출산과 육아로 지쳐있었지만, 아기를 통하여 자신의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를 떠올리게 되었다.

애기가 태어났는데 손과 발이 너무 작고... 너무 작어서 ‘어떻게 안아 주지?’라고 생각했어요. 또 애기가 웃는 모습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잘 때 모습 보고 있으면 좋았죠. 애기가 태어나서 힘들긴 했지만, 아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 같아요.(참여자3)

우리 애기는 바닥에 눕히면 안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안아서 재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뻐던 일이 애기를 낳은 거요. 하하하(크게 웃음)... 제일 힘이 되었어요. 애기가...(참여자4)

(2) 몸을 추스르며 엄마 되어가기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기를 통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참여자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셨을 부모님의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며 친정 엄마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아기를 위해 출산 후 입맛이 없어 밥을 먹기 힘들었지만, 몸에 좋다는 음식을 최선을 다하여 먹어가며 자신의 몸을 추스르고자 하였다.

저는 미역국을 3달 정도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질리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저는 먹으면 몸에도 좋고 모유도 잘 나온다고 하나니까... 이틀에 한 번 큰 냄비에 끓였어요. 하하하(밝게 웃음), 또 (생각하듯이)... 생선, 돼지고기도 잘 먹었어요.(참여자1)

여기 미역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깐, 시어머니와 (식당)이모님들이 미역 먹어 야 빨리 낫고, 회복이 잘 된다고 하나니까... 어른들이 나보다 잘 아니까 믿고 따랐죠. 그래서 한 달 질리도록 먹었죠...(웃음)(참여자5)

3. 연구참여자의 한국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의 일반적 구조

연구참여자 6명의 중심의미를 종합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통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을 통한 모성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타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적응을 시작함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한국 적응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언어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출산 관리에 필요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한계는 시댁가족과 함께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한국의 산후조리를 경험하며 모국의 전통 산후관리인 어끄(õ cữ)를 생각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따뜻한 방에서 몸의 보온을 유지하고, 신체 회복을 위한 음식을 먹는 한국의 산후조리가 모국의 어끄(õ cữ)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모국에서처럼 귀에 솜을 막고, 산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싶었으나 시댁가족의 분위기와 모국과 다른 환경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출산 후 약해진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휴식을 중요시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체 활동을 권유 받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염려하게 되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육아를

떠맡게 되면서 심신의 버거움은 날로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도움의 손길을 아쉬워하며 물리적 거리가 있는 친정 부모님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고, 시댁 가족 속에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은 출산 후에도 변한 것이 없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사무쳤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타국에서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였고, 고향 사람과 주변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지지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아기를 통해 타국 삶에 대한 이유를 찾고 모국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의 몸을 추스르며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는 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중심의미인 ‘이중고 속에 이루어진 출산’, ‘어끄(ở cữ)와 산후조리 사이에서 염려되는 건강’, ‘버거운 육아로 지쳐가는 몸’, ‘혼자 감내해야 하는 돌봄 속에 사무치는 향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마운 동반자’, ‘심신을 추스르며 정착해가는 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언어적 소통은 물론 문화적 적응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출산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참여자들은 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여성의 모성 갈등 관련[13]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공통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적응과 관련된 주요 요소는 언어구사 정도와 거주기간이라 볼 수 있는데[17] 본 연구참여자들은 1~2년 사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한국 적응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여자들에게 언어와 거주 기간에 있어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한국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평균 17세로 이주여성 중 가장 큰 폭을 보이고 있고[18] 본 연구참여자들도 배우자와 최소 10세 이상의 차이가 나서 시댁 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의 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와 아이를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참여자의 언어습득 능력이 향상되고 문화적 적응이 된 상태에서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이주여성뿐 아니라, 가족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 및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문화에서 산후조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가장 강한 문화이며[4], 한국의 산후조리와 같이 본 연구참여자의 모국인 베트남에도 민간의 산후관리인 어끄(ở cữ)가 존재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출산 후 이뤄지는 병원 산후관리 및 시댁의 산후조리를 경험하며 모국과 불일치하는 산후 관리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걱정하였다. 참여자들은 모국에 비해 이른 시기에 신체활동을 재개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쉬지 못하는 물론 음식의 종류 및 조리법 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현재도 신체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여성과[14] 중국 여성의[19] 연구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나 산후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 여성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산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이 출산의 주체자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에서부터 다문화 맞춤형 산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 다문화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국 조산사의 교육에서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결혼이주여성고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참여자는 산후조리와 동시에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없었다. 참여자들에게 타국이라는 환경은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신체적 돌봄보다 육아가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산모에게 아기 돌보기 자신감은 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20], 본 연구참여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를 초월한 산모들의 공통적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은 타국이라는 특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가족의 적극적 도움과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편은 참여자의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이며 남편의 산후조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1]. 또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산모의 모성역할 및 산후우울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22] 참여자들이 산후조리 기간에 충분한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적으로 다문화 여성을 둔 배우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시기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결혼과 출산, 육아를 혼자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짐으로 참여자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

었다. 이러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 후라는 상황은 단순한 향수병이 아닌 산후 우울이라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Choi [10]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보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산후 6개월 이내 산후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향수와 연계한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만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 [23]에서는 산후 우울이 낮게 나타나 단순한 국가적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며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출산 후 산후 우울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참여자 중에는 산후우울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 고위험 임신부 대상 정신건강 평가가 필요하다. 산후우울증을 가진 산모의 약 50%가 임신 이전이나 임신 중에 우울을 경험하며 이는 산후 합병증이나 저체중출생아 출산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24], 임신초기부터 우울증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전간호에서부터 관리되어야 하며, 산후에서도 정기적 검사를 추가하여 참여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체계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참여자들은 타국이라는 힘든 환경에서 출산 후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받고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시댁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신체적 회복을 도모하기도 하였고, 출산 후 몸에 좋다는 한국식 산후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건강은 물론 아기에 필요한 모유의 양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도움과 노력으로 타국에서 건강한 모성으로 적응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일부 참여자는 친정어머니가 출산 후 조력자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돌봄 현상은 베트남 [14]과 중국여성들의 연구[19]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참여자 중 시댁식구와 함께 주거하고 있어 출산 후 도움을 주고자 방문한 친정어머니가 시댁과의 동거에 불편해하며 고향으로 일찍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에게 친정어머니의 도움은 가장 절실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제한적이기도 하며 한시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은 베트남 여성 출신의 산후 조력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 출신의 산후도우미는 참여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산후 돌봄을 통해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 모국의 '어뜨(ở cũ)'를 활용함으로 신체적 건강을 도모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25].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친정어머니를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하여 재정 문제에 대한 압박 없이 모국 음식에 대한 향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공공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모성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는 한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출산의 경험이 있고, 한국어로 자신의 경험을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총 6명이었다. 연구결과 6개의 중심의미와 12개의 주제도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산후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가족 및 지인들의 지지체계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결국은 이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이며 적극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신,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문화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 실무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간호 요구에 맞는 적절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 연구 및 교육에서는 의료인들의 다문화 출산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다양한 출산 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여 의료인의 다문화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ORCID

Kwon, Young Eun
Park, Jung Suk

<https://orcid.org/0000-0003-1879-9669>
<https://orcid.org/0000-0001-5858-9434>

REFERENCES

1. Kim YO, Kim HM. What it means to form 'global households': A case study of Korean-Vietnamese families in South Korea. *Gender and Culture*. 2013;6(2):177-213.
2. Statistics Korea. The 2016 multicultural demographics statistic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6 [cited 2018 August 13].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 ?bmode=read&bSeq=&aSeq=36467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B%8B%A4%EB%AC%B8%ED%99%94
3. Yoo EK, Integrated postpartal care: Sanhujori and nursing care. Seoul: Hyunmoonsa; 2004. p. 13-88.
 4. Kim JH. The culture of childbirth among young urban Korean women: The perspective of culture change.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2007;40(2):249-251.
 5. Yoo EK, Kim HJ, Jung ES, Kim YC, Lee MJ, Kim TK, et al. Sanhujori guideline. Seoul: Fornurse; 2016. 155 p.
 6. Van Vo Tu. The childbirth rituals of Coho Sre in Di Linh District, Lam Dong Provinc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Journal*. 2016;19(2):32-40.
<https://doi.org/10.32508/stdj.v19i2.748>
 7. Small R, Rice PL, Yelland J, Lumley J. Mothers in a new country: The role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in Vietnamese, Turkish and Filipino women's experiences of giving birth in Australia. *Women & Health*. 1999;28(3):77-101.
 8. Roh EH, Song JE. Grounded theory approach for becoming a mother of Chin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7;21(3):166-175. <https://doi.org/10.21896/jksmch.2017.21.3.166>
 9. Choi EY, Lee EH, Choi JS, Choi SH.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stpartum depression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1):39-51.
 10. Logsdon MC, Wisner KL, Pinto-Foltz MD. The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on on mothering.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006;35(5):652-658.
<https://doi.org/10.1111/j.1552-6909.2006.00087.x>
 11. Song JE. Factors related to the childcare stress among primiparous women who delivered at women's health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9;13(2):158-170.
 12. Oh EJ, Park JS, Kim YK, Lee HS. The meaning of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women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3;17(2):256-269.
 13. Cho HH, Park ES, Oh WO. Maternal conflict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6):617-629.
 14. Kim SH. Health care experiences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period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5;29(2):325-343.
<https://doi.org/10.5932/jkphn.2015.29.2.325>
 15. Giorgi A.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997;28(2):235-260.
<https://doi.org/10.1163/156916297x00103>
 16.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5. p. 301-331.
 17. Cho IJ, Hyun AN. Structural relations among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012;40(1):177-206.
 18. Kim HR. Maternal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marriage-based women immigrants in Korea and policy direc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55:50-64.
 19. Song JE, Park SM, Roh EH.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mong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6;22(1):48-60.
<https://doi.org/10.4069/kjwhn.2016.22.1.48>
 20. Rutter M.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s, new concepts, new approaches.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979;50(2):283-305.
<https://doi.org/10.2307/1129404>
 21. Joo EK, Yoo EK. Husbands' awareness of sanhujori, needs for education and family strength.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21(2):93-105.
<https://doi.org/10.4069/kjwhn.2015.21.2.93>
 22. Cohen S, McKay G.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Baum A, Taylor SE, Singer JE, editor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Hillsdale, NJ: Erlbaum; 1984. p. 253-267.
 23. Lee LC, Hung CH. Predictors of post partum-stress in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Taiwan.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16;13(1):38-45.
<https://doi.org/10.1111/jjns.12084>
 24. O'Keane V, Marsh MS. Antidepressant prescribing and pregnancy: Comment on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antidepressant use in a cohort of pregnant women', by Ramos et al. *BJO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2007;114(9):1051-1054.
<https://doi.org/10.1111/j.1471-0528.2007.01388.x>
 25. Korea Multicultural Broadcasting. Multi-cultural postpartum caregiver like mother-in-law[internet]. Seoul: Korea Multicultural Broadcasting; 2015 [cited 2018 October 5]. Available from: <http://www.kmbnews.co.kr/news/view.asp?idx=1811&msection=2&ssection=84&page=8>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Vietnamese migrant women hav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Korea as they get pregnant and give birth while they start to adapt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Korea.

■ **What this paper adds?**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hold a belief that healthcare after childbirth may affect health of their old age. Vietnamese migrant women's such belief may create an emotional conflict in healthcare after childbirth in Korea. Thus, nursing programs must be provided in clinical practice in consideration of their culture.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prepare a foundation that can improve nursing capability for multi-culture by investigating perception of medical personnel about multicultural childbirth culture and providing systematic education for various cultures of childbirth.